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金殷泳 위원장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실  
일자 : 6월 16일 오후 5시

# “창의적 과학기술시대로 도약해야”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金殷泳위원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부처별로 중복된 과학기술활동을 종합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  
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  
니다. 늦었지만 제5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축  
하드립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위원장으로서 포부라고 할까,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요즘 경기침체로 해서 걱정이 많  
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고임금·고급리·고지가 등 3고(高)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과학기술력입  
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방기  
술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넘어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  
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과  
학기술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  
학기술이 없이는 경제발전이 없다는  
것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 과학기술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이려 합니다.

## 기술혁신 통한 국가발전 모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재 준비중인 자문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문회의는 분기별로 1회 대통령께 정례 자문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준비중인 과제는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과학기술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연계시켜 다가올 제2, 제3의 경제침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결실을 얻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면한 경기침체를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는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실효성있는 자문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제4기 자문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문위원들의 풍부한 식견과 아이디어에 기대가 큼니다. 자문회의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제도발전에 관해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각계 전

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자문과제를 발굴하고 심층연구·분석해서 대통령의 국가경영과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다 실효성있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이 아닌 과학기술자들로부터도 폭넓은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요. 그 중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소득에 따른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당 국민소득이 이제 막 1만달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이 1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1982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15년의 격차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과학부문에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입니다. 기초연구를 위해 독일은 막스 플랑크(Max Planck)연구소를 1911년, 일본은 이화학연구소를 1917년에 세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담기초연구기관이 없습니다.

■ 우리의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번째는 국가가 추진중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과학기술행정은 주로 과학기술처에서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지금은 통상 산업부·교육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농수산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 김은영(좌측) 신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이 이광영 본지 편집위원에게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 부처별 중복활동 종합조정

그러나 이같이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 개발활동이 종합 조정없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중복과 예산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능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고유 연구영역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의 탁월성(Excellence)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국가연구기관들이 있지만 이들이 연구영역을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차별화함으로써 필요없는 경쟁과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마련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잘 조정해갈 것으로 압니다. 자문회의는 과학기술처를 도와 「과학기술 5개년계획」이 잘 수행되도록 측면에서 도와

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마련중인 「과학기술 5개년계획」이 타 부처와 입장 차이가 있는데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무척 쫓기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역할을 모색해야겠지요.

■ 한 나라의 과학기술은 통치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 집권당은 그동안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통치권자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정책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金泳三 정권은 앞으로 8개월 남짓 임기가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자문회의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보필할 계획이신지요.

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8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자문회의는 이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를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릴 것입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8개월동안 과학기술부에서 대통령을 보필해서 현 정부가 해야 할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부처간의 이견조정과 정책을 결정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일조할 계획입니다.

■ 어려운 시기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직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다. 정치·경제·사회 모두가 어려운 데다 정권 창출을 위한 과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시기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조해서 과학기술계의 단합을 유도하고 특히 대선 주자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21세기 과학기술의 역할 등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 일반 국민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인파와 기업인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 국민 과학대중화사업 시급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소홀히 하면 오늘과 같은 경기침체가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엔고(高)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기가 춤을 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학기술력에 바탕을 둔 산업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경쟁력이 생깁니다. 이제는 모방의 시대에서 창의적인 과학기술시대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기초연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국민 과학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7